

“이산가족 상봉 최대한 빠르게”... 바빠진 韓赤

농산물 ‘반송’ 수산물 ‘유통’

대상자 선정 등 한달 소요

추석 지나야 가능 할 듯

인력 보강 등 준비 분주

이산가족, 전화 문의 쇄도



통일을 향해...

북한이 우리 정부가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을 수용한 18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어린이들이 통일 기원 문구를 적은 태극기를 철조망에 걸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통일부가 16일 북한에 적십자 실무접촉을 공식 제의하고 북한이 이를 이를 위해 수용함에 따라 상봉 행사를 주관하는 대한적십자사(한적)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한적은 지난 16일 회의를 열어 실무접촉 개최 때 준비 절차와 상봉 이산가족 선정 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산가족 상봉이 합의되면 한적은 상봉 후보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인선위원회를 개최하고 나서 고려자, 직계가족 우선 원칙 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무작위 추첨으로 상봉 인원의 3~5배수를 선정한다.

이후 상봉의사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해 상봉자를 2배수로 압축하고 나서 북측과 생사확인 의뢰서를 교환하고 있다.

한하고 생존자 중 최종 대상자를 뽑게 된다.

한적 관계자는 “상봉이 결정되고 나서 관련 절차들을 처리하는데 통상 50일 정도 걸리고, 빠르면 한 달 정도 소요된다”며 “물리적으로 추석은 지

나야 할 것 같다”라고 내다봤다.

한적은 상봉이 합의되면 신속한 준비를 위해 관련 업무 인력도 보강할 계획이다.

아빠에 한적은 이산가족들의 문의가 쇄도함에 따라 안내에도 온 힘을

쏟고 있다.

한적 관계자는 “상봉 행사 재개 여부와 절차를 묻는 이산가족들의 전화가 오늘 오전에만 수십 통이 걸려왔다”라며 “대통령이 직접 제안했고, 추석이 얼마 안 앞서 그런지 어느

때보다 관심들이 더 많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적은 이달 19일부터 서울 중구 남산 본사에 있는 이산가족 민원접수처에 자원봉사자를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개성공단 정상화 가속도 붙었다

이번주 남북공동위 구성... 시설점검 인원 방북

한·미 연합 을지훈련 남북관계 큰 영향 없을 듯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우리측의 조처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재가동 시점 등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논의와 현장의 설비·점검이 본격화되는 이번 주부터 서서히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는 재발방지 및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인프라·공장시설 점검 등 ‘투 트랙’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정부는 우선 ‘공동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체결 문제를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이르면 19일부터 북측과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우리 측 합의서 문안은 작성돼 정부 내에서 최종 검토 중인 상황으로 정부 내 협의가 마무리가 되는 즉시 문서교환 형태로 북측과의 본격 논의가 시작된다.

일단 공동위가 구성된 뒤 1~2차례의 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재가동 시점이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사전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토요일인 17일 개성공단 내 시설을 점검하기 위한 인원을 개성공단에 파견, 전력·통신·용수 등 인프라 시설을 점검한 데 이어 19일에도 시설점검팀을 다시 개성공단에 보낸

다. 한국전력과 KT 점검팀은 개성공단 방문 직후 “공단이 재가동되면 전기를 공급하고 내부통신망을 재개통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반시설 점검을 진행한 뒤에 생산시설 점검을 위한 입주기업의 방북을 허가할 방침으로, 금주 후반에는 시급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공장 재가동을 위한 방북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트립가디언(UFG) 연습이 19일부터 실시될 예정으로, 이 훈련이 이산상봉이나 개성공단 재가동 시점 등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장영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UFG 연습에 대해 말로는 비난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나 이산가족 상봉



한국전력, KT, 수자원공사,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이 탑승한 차량이 17일 개성공단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도라산 남북출입국사무소를 출발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자제를 연계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향후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청년토론회

광주 등서 타운홀미팅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위원장 남민우)는 19일부터 지역의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를 고민하기 위한 타운홀 미팅을 시작한다.

청년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19일 오후 6시부터 창업보육센터를 시작으로 청년과 함께하는 타운홀 미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및 관계자, 청년위 위원들 그리고 관계부처 공무원이 참석해 창업과정의 애로사항을 듣고 청년 일자리 정책 및 대학창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타운홀 미팅은 대전, 충북, 강원, 부산, 광주, 대구, 전북 등지로 이어진다.

청년위는 지역에 상관없이 10명 이상의 청년이 모여 전화(02-397-5033)로 요청하면 된다. /박지경기자 jkpark@

보건당국 ‘방사능 검출’ 日 농·수산물 수입 이종잣대 논란

최근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돼 일본산 식품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커진 가운데 방사능 물질이 미량 검출된 일본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당국이 기준치 이내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일본 수산물을 국내 수입·유통시키는 반면,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경우 미량이라도 검출되기만 하면 모두 반송시키는 ‘이중 관리’를 하고 있어서다.

국회 등에서는 정부가 소비자의 우려를 제대로 인식해 일본산 수산물을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방사능 물질 미량검출 일본산 수산물 3천10t 유통=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로 들어온 수산물 가운데 방사능 세슘 또는 방사능 요오드가 검출된 물량은 수입신고 기준으로 총 131건, 중량 기준 약 3010t이다.

131건 모두 방사능 요오드(131I)는 나오지 않았고, 방사능 세슘(134Cs 또는 137Cs)이 기준치(1kg당 100베크렐)이내로 측정됐다.

대부분 10베크렐 이하로 낮은 수준이었지만 냉장·냉동대구는 7건에서 수십베크렐이 나와 상대적으로 더 높은 편이었다. 기준치에 육박한 98베크렐이 검출된 적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수입식품 검사를 통과해 매장과 식당에 공급됐다.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식약처는 “기준치 이내의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안전하므로 유통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농산물·가공식품은 방사능 물질 검출되면 사실상 수입불가=일본산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선 식약처의 대응 방식이 다르다.

수입단계 검사에서 방사능 세슘·요오드가 검출되면 식약처는 통관을 보류한 채 수입자에게 플루토늄과 스트론튬 같은 다른 핵종의 검사신청서(비오염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한다.

이들 두 핵종을 검사하는 데는 8주 정도가 걸리므로 수입자들은 추가 검사를 하지 않고 해당 물량을 모두 일본으로 반송시켜 버린다. 결국 방사능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사실상 수입을 차단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농산물·가공식품과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안전관리에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쉽게 부패하고 한꺼번에 다량·고가로 수입하는 수산물의 특성 때문에 60일씩 걸리는 추가 검사를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 소비자 기피하자 ‘국산’으로 둔갑시키기도=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다량 유출을 시인하면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신과 우려가 부쩍 커지는 모양새다.

소비자들이 일본산 수산물을 기피하자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이는 사례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주 의원실에 제출한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원전사고가 난 지난 2011년 원산지 표시를 속이거나 누락한 일본산 수산물 129건이 적발됐다. /연합뉴스

전남 수출액 연평균 20% 이상 증가

최근 10년 전 국평균 웃돌아

전남지역의 최근 10년간 수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하는 등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18일 “세계경제 침체가 심했던 2009년을 제외하고 수출이 꾸준히 늘어 전국 평균 증가율 13%를 웃도는 20.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총 수출액은 2003년 89억 달러에서 2012년 419억 달러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수출국가는 156개국에서 172개국으로 16개국이나 늘는 등 수출시장이

다변화했다. 품목도 10년 전 696품목에서 1331품목으로 2배가량 늘었다. 수출액 상위 10대 품목 중 석유제품, 화학제품, 철강, 수송기계, 정밀화학, 비료, 농수산물 등 8개 품목은 변동이 없었다.

반면 2003년에 포함됐던 화학공업제품, 제지원료 및 종이제품은 플라스틱제품과 기초산업기계가로 교체됐다. 또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17곳이 307억 달러, 중소기업 1756곳이 112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전형적인 대기업 수출 의존도를 보이고 있었다. /오광희기자 kroh@kwangju.co.kr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개발등의 물건을 접수합니다.

감정가 이하물건

- 총장로 5가 버스도로 대지 777㎡(235)공시지가 17억7천천 대도 9억5천 오피스텔,상가개발지역
- 계림동 구 호텔건물 대지 542㎡ (164)건평 396㎡(1200) 목욕탕,찜질방,객실38개 등과 유흥시설 등 18억
- 북구 유동 상업지역 대지 411㎡ (124)건평 327㎡ (99) 공시지가 2억 8200 대도 2억 9천
- 금남로 4가 대로변 대지 317㎡ (97)건평 1235㎡ (363) 건물 2층 공시지가 14억 5천 대도 16억 5천
- 월산동 목욕탕,원룸,투룸,대지 508㎡ (153) 건평 741평 병원,요양시설 등 적합 16억 5천
- 대인동 동부소방서부근 대로변 대지 694㎡ (210) 건물 158평 광주은행본점 부근 공시지가에 대도 11억 6천
- 신안동 한방병원 대지 645㎡(195) 건평 372평 감정 16억 5천선 대출 11억 대도 13억
- 신창동 대지 301평 건평 715평 회사사옥,병원노인시설 등 적합. 은행17억 보충금 4억 3천 월 1650만원선 대도 35억

투자·나대지

- 동구 수기동 705㎡(213) 원룸,투룸,쓰리룸, 83개 허가 주택기공 12억 각층협업가능 대도 7억4천
- 담양군 대덕면 고속도로접 관리지역 2587평 공장,창고 등 적합 대출 1억6천 대도 2억 3천
- 목포대학 부근 생활주택 84개 허가지역 땅 372평 은행 2억8천 대도5억5천 투자까지 매우좋음
- 함평군 해보면 영업장되는 여관과 접해있는 땅 2층 주거 지역 504평에는 아파트, 생활주택 접합 투자에 최고 대출 4억 대도 10억5천
- 광주와 담양을 사이 4차선 국도점 2111평 주유소,가스충전소 허가면 대출 10억 대도 12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금남로 5가 광주고용센터 옆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옥션건설팀부, 매수신장대리업체(법인인가)
상가 주택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상가 주택

- ▷ 동구 충장로5가 중심상업 7층상가사무실 대지579㎡ 건평2929㎡ 감정가43억 최저가24억
- ▷ 광산구 온남동 2중주거 3층상가주택 대지221㎡ 건평440㎡ 감정가75억 최저가3억5천만
- ▷ 광산구 신가동 3층상가주택 대지429㎡ 건평561㎡ 감정가16억9천만 최저가14억8천만

단독주택

- ▷ 서구 화정동 2중주거2층주택 대지159㎡ 건평184㎡ 감정가1억3천만 최저가19천만
- ▷ 서구 화정동 2층단독주택 대지154㎡ 건평196㎡ 감정가1억6천만 최저가1억2천만
- ▷ 광산구 송정동 2중주거단독주택 대지252㎡ 건평131㎡ 감정가1억3천만 최저가19천만

공장및창고

- ▷ 광산구 지족동 준공업지역2층공장 토지1914㎡ 건물 1379㎡ 감정가15억 최저가8억3천만
- ▷ 광산구 용동 일반공업 2층공장 토지3305㎡ 건물2711㎡ 감정가30억 최저가21억
- ▷ 담양군 창평면 단층창고,사무실 토지3279㎡ 건물 1560㎡ 감정가14억7천 최저가3억2천만

토지매매

- ▷ 동구 내남동 1중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상담용 가격조정
- ▷ 무안군 해제면 덕산리 관리지역 전일야 3642㎡ 매매3,500만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동원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전문)

상가건물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 (7층) 보5억4천,월3500만 매46억원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3층) 보3억원, 월1200만인 매24억원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10층) 보25억, 월 6500만인 매130억원
- 광산구 수원지구(5층) 보2억천, 월1390만 매27억원
- 광산구 신창동(5층) 보2억,월1040만 매19억원

대지/답

- 금호동 계획도로접 자연녹지 3,400㎡ 매32억원 (병원, 차고지, 대형기든, 정래예식장, 투자족적)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 960㎡ 매 36억원(병원,시육)
- 치명동 광송간도로 395㎡ 매14억원(병원,시육,전시장)
- 생촌동 운천역부근 상업지 845㎡ 매기25억 (시육,전시장,병원,도시형)

• 상가건물, 나대지 급구 •
010-3753-0033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모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물건에 대하여 비밀보장하여 드립니다.

▶ 전남여고 건너편 ◀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

공장매매

장흥군 장평면 장평농공단지내

【 토 지 】 4,864㎡

【 공 장 】 375㎡

【 사무동 】 161㎡

기계장치 포함

【 용 도 】 특수시멘트 (몰탈 등)제조공장

매매가액 3억원

조성중인 장흥농공단지 토지분양가 평당 239천원

017-602-1948